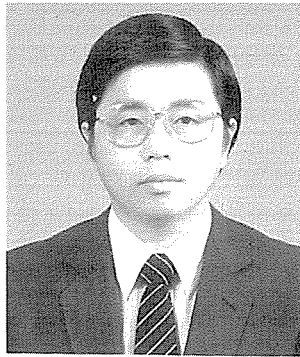


학생의 흥미·관심 살려 과학교육 활성화 해야

『새벽 5시50분이면 항상 그러셨듯이 어머니께서 나를 깨우신다. 부시시한 눈으로 일어나 세면하고 아침밥을 간단히 먹고, 6시30분에 집을 나선다. 7시30분까지 교실에 입실하여 자율학습에 임하여야 한다. 8시에 보충학습의 시작으로 오전 4시간의 정규수업이 진행된다. 이어서 기다려지는 점심시간. 어머니께서 싸주신 점심밥을 배가 고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먹는다. 14시부터 오후 정규수업, 보충수업, 통제받는 자율학습을 18시까지 실시한다. 이어서 저녁밥을 또 그렇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먹어치운다. 좀 더 나아가 들면 어머니의 고마움을 알게 될는지...; 18시40분부터 야간 자율학습이 21시까지 통제되어 실시되고 학교의 생활이 끝난다. 학교를 떠나 집에 도착하면 22시20분이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의 생활이 진행될 것이다.』

이 글은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하루생활을 가식없이 약술한 것이다. 그래도 12학년은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할까? 3학년의 하루생활은 더욱 숨막힐 정도이다. 교사 또한 정규수업과 보충수업, 자율학습 지도 등으로 꽉 짜여진 틀속에서 진정한 탐구적 과학교육이란 말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교육현장에는 침투할 수 없다. 과학교육은 산물로서의 과학(science as products; 지식)교육과 과정으로서의 과학(science as processes; 탐구 활동)교육, 모두를 중요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

현장서 본 과학 교육



鄭建相
(대전고교사)

제의 교육여건에서는 탐구적 과학교육은 소홀히 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과학교육환경이 잘 구비되었다하더라도 불가능하다.

탐구적 과학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현재의 과학교육에는 문제점과 장애요인이 너무 많다. 과학교사들이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제언을 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현장교사로서 현재의 교육상황에서 과학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세가지만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진학준비에 초점을 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지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통제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은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

시켜 창의적인 사고를 억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의 하루일과는 오로지 대학문으로만 향하고 있어 인간교육이라는 측면과 과학교육의 운영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충수업과 통제된 자율학습시간을 학생 자율시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특기신장과 특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과학교사는 자기 교과영역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과학교육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되겠다.

둘째는 고등학교 내신등급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현재의 내신등급제도와 대학입시제도 하에서는 학생사이에 과도한 경쟁의식과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 불신의 장벽이 높아 참된 과학교육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의 교육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시키면서 학생들의 적성과 특기에 맞도록 특별활동을 다양화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진정한 인간교육을 달성할 수 있고, 과학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과학교육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과학교사의 의식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과학교육은 과학담당교사에 책임이 있으며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교육에는 과학교육과정의 미흡, 과학실험실과 준비실의 부족, 실험기자재의 불량과 부족, 탐구활동 소요예산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과 장애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이 일시에 개선되기는 어렵고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과학교사의 의지가 크게 요구된다.